

'94 대한결핵협회 결핵관리 사업계획

김성권 / 본회관리부장

“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결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에 대한 비시지 접종강화,
 대국민 결핵계몽과 홍보사업,
 그리고 결핵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대한결핵협회는 1953년도에 비영리 법인 민간단체로 설립되어 결핵사업을 시작한 지 어언 41년이 되었고, 정부에서 결핵관리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채택한 해가 1962년도이니 그로부터 32년 동안을 정부와 역할을 분담하여 결핵퇴치 사업에 임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정부와 본회의 강력한 대책과 지원으로 1965년도 제1차 전국 결핵실태조사에서 5.1%로 나타난 유병률이 제6차인 1990년도에는 1.8%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72만 명의 결핵환자가 잔존하고 있으며,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연간 5,000명 이상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고, 10대 사인 중의 만성전염병 중에서는 유일하게 결핵만이 들어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우리를 더욱 긴장하게 하는 것은 결핵이 완전퇴치의 일보직전에 있던 미국에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와, 영국, 덴마크, 스위스 등에서도 결핵이 증가(3.9~33.3%)하고 있다는 세계 보건 기구의 최근 발표입니다. 이들 나라에서 결핵이 다시 증가하게 된 이유로는 결핵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잘못 인식하여 방심한 결과 예산을 삭감하고 대책을 소홀히 한 것과 AIDS, 마약 및 무주택자의 증가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개발도상에 있는 다른 국가보다도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결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에게 BCG를 접종하여 면역력을 갖게 하고 숨어있는 환자를 찾아내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건강을 회복케 하고, 또

국민에게 결핵을 계몽하고 홍보하여 결핵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결핵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등을 중단없이 강력히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정부와 협회가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1994년도에 협회에서 계획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핵예방 접종약(BCG) 생산

정부에서는 연간 130만 명 이상의 어린이에게 결핵예방접종(BCG)을 함으로써 면역을 갖도록 하여 발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BCG 전량(28만 ml)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투베르쿨린(PPD) 원말생산

결핵감염진단과 예방접종사업에 필요한 투베르쿨린을 그 동안에는 코펜하겐 혈청연구소로부터 원액을 구입하여 국립보건원에서 희석한 것을 연간 75만여 명의 진단에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동 연구소에서 원말의 판매를 중단한다는 통보가 있어 차제에 동 원액을 자체 생산하기로 결정하여 '93년도 7월부터 결핵연구원에서 생산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도에 완료될 예정이며 생산량은 25g으로 우리나라에서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엑스 선 검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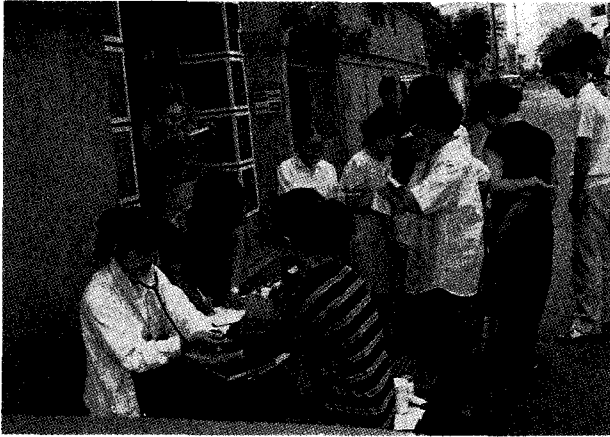
20개 엑스 선 이동검진반을 운영하여 정부 결핵관리 방침에 의해 농어촌의 취약지구 주민, 도시 빈민촌 주민 및 수용



시설에 수용된 유증상자를 현지로 찾아가 23만 3,000명을 검진하여 여기에서 발견된 환자를 해당 보건소에 등록치료케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을 대상으로 결핵 계몽을 강화하고 결핵증상이 있는 사람을 검진에 유도하는 결핵요원들의 역할이 크게 요청됩니다. 그리고 중, 고등학교 1학년생 123만 4,500명을 대상으로 엑스 선 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인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폐의 건강을 진단할 것입니다.

결핵균 검사사업

전국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결핵환자들의 치료상태를 파악하고 아직도 건강인들 속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결핵을 전염시키는 환자를 찾아내기 위한 직접도말검사와 배양검사, 그리고 초치료에 실패한 환자의 적절한 약제의 선정을 위한 약제감수성 검사 등 총 27만 8,970건의 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소 객담검사 요원에 대한 현지 기술지도도 271회 실시할 것입니다.



국가 결핵관리 방향설정과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연구사업.

조사연구사업

국가 결핵관리의 방향설정과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비시지를 맞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결핵감염을 조사와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시지백신의 역가평가와 국·공립병원 및 민간 병·의원에서의 결핵환자 치료에 대한 효율조사를 할 것입니다.

결핵에 관한 학술 및 관리기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7명이 국제회의에 참석할 것이고, 결핵전문가도 초청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투베르쿨린 생산을 위한 연수, 복합백신개발연수 및 결핵관리 연수를 위하여 3명을 해외에서 연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기술지원사업

의료기술을 지원하여 결핵관리 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결핵관리의 평준화를 도모코저 결핵관리 중앙지도반을 운영하였으며, 공중보건 의사 및 개업의사를 대상

으로 결핵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새로운 결핵지식을 알려줌으로써 환자치료 및 관리에 기여하겠습니다. 개발도상 국가간의 기술협력 일환으로 WHO 장학생 훈련을 실시하고, 각 시·도의 결핵관리 의사와 지도 간호사의 활동지원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신규로 등록되는 환자의 실태도 조사하여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진료사업

9개 복잡자위원을 운영하여 주로 초치료에 실패한 난치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연 14만 9,820명을 진료하겠으며, 7월부터 개원예정인 강원지부 복잡자위원회에서도 6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업 병·의원에서 의뢰하는 결핵균 검사는 3만 293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전의 배양검사는 검사과정에서 복잡하여 검사결과를 알기까지 3~4주 이상 걸

리고 균이 1ml당 1만 마리 이상 있어야 찾아낼 수 있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DNA 중합효소 연쇄반응(PCR)에 의한 결핵균 검출법을 새로이 개발하여 72시간 이내에 단 1마리의 결핵균도 찾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핵연구원의 결핵균 검사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제간 정보교환과 연구개발로 검사성적의 정확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정기 신체검사에서 흉부 엑스 선상에 소견이 있는 자와 이전에 결핵을 앓았던 경험이 있는 자(1만 7,500명)를 대상으로 결핵균 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계몽지도

결핵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지식을 홍보, 계몽할 것입니다. 결핵관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방송, 신문 및 잡지에 94회 홍보를 실시하고 홍보물(14종)을 제작 배포할 것이며, 지령 41년이 되는 월간「보건세계」를 연 36만 부 발행하고 「담배와 건강」을 연 6만 부 발행하여 금연 홍보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세계 결핵의 날(매년 3월 24일) 행사를 통한 결핵홍보도 계획하였고, 본부에 결핵홍보 전시관도 운영하겠습니다. 직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제회의 참석과 해외연수도 실시하겠고, 직무교육도 2회 실시하겠습니다.

'93년도에 현장 조사를 마친 "결핵인식도 조사"를 분석 발표하였으며, 「본회 40

년사」도 발행하겠습니다.

썰 모금운동

썰 모금운동은 본회가 창립되면서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41년째가 되는데, 국제항결핵 및 폐질환연맹(회원국 118개국)에서 개최하는 "세계 크리스마스 썰 콘테스트"에서 우리나라의 썰이 '88년도 이래 연속 4회에 걸쳐 1위에 당선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썰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이 썰 모금운동에 적극적으로 면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결핵퇴치기금 마련에 크나큰 몫을 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94년도에는 3,536만 8,000매를 발행하여 '여기에서 마련되는 자선모금액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결핵예방약(BCG) 생산비,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객담(가래)검사와 엑스 선 검진사업비, 불우한 난치성 결핵환자의 진료지원비, 그리고 금연운동 사업비 등의 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94년도 예산을 보사부에 승인요청중에 있으나 본회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예산규모

본회의 예산은 국고보조금회계 16억 7,853만 4,000원과 자체수입인 일반회계 98억 1,462만 원으로서 총 114억 9,3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3년도보다 2,730만 4,000원이 감액된 16억 7,853만 4,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4.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정부에서 본회에 위탁한 사업, 즉 주민검진, 세균검사, BCG 및 PPD 생산과 조사연구 및 기술지원 사업비에 충당하고 있으나 필요한 금액이 크

게 부족하여 일반회계에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93년도보다 1억 8,390만 6,000원이 증액된 98억 1,462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85.4%를 차지하고 있고

1994년도 예산

「단위 : 천 원」

세 입		세 출		비 고
재 원	예산액	사업별	계	
계	11,493,154	계	11,493,154	
국고보조금	1,678,534	기본적경비	6,106,399	
자체수입	9,814,620	인 건 비	4,547,877	인원 290명
회 원 비	20,725	기준경비	1,032,211	국고보조금 120명
쌀 모 금	4,120,560	관리운영	458,860	자체재원 170명
진료수입	4,080,773	사 업 비	4,533,402	
검진수입	802,950	주민검진	67,986	국고보조금
건강진단	189,112	세균검사	109,852	"
잡 수 입	338,500	비시지생산		"
이 월 금	262,000	피피디생산	131,627	"
		조사연구	109,437	"
		기술지원	16,217	"
		계몽지도	365,716	자체재원
		기금조성	622,584	"
		학생검진	257,018	"
		진료사업	2,332,718	"
		건강진단	45,069	"
		사업보조비	475,178	"
		퇴직지원금	734,348	"
		예 비 비	119,005	"

계몽지도, 진료사업, 기금조성, 학생검진사업 및 운영관리에 쓰이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본회 사업의 활성을 위하여는 자체 수입을 증대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수입의 세입원은 회원비, 쌀 모금, 학생검진수입, 진료수입, 외래검사수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회원비는 회원모집의 어려움이 있어 전년도 목표에 만족할 수밖에 없으며, 학생검진수입은 검진수가 650원으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학생수도 매년 감소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로 인한 세입증대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병·의원에서 의뢰하는 세균검사에 대한 수입도 시중에 전국조직망을 갖춘 수탁검사기관의 난립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쌀 모금액은 초, 중등학생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94년도에도 '93년도보다 10.3%가 증액된 41억 2,056만 원을 모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쌀 운동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로부터 불평을 사기도 합니다. 쌀 운동의 참뜻과 모아진 성금이 유용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하여 국민 모두의, 특히 성인층에서의 많은 참여가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핵환자의 감소와 전국 의료보험의 실시로 복잡자의원에 찾아오는 환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복잡자의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결핵 이외의 호흡기질

환의 진료를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부 복잡자의원에서는 이미 높은 관심을 가지고 '94년도 사업에 의욕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93년도 대의원 정기총회 때 본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내용에 건강진단과 AIDS에 관한 홍보사업을 추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업도 개발하여 나아가갈 것입니다.

1994년도에 책정된 예산으로 계획한 사업은 차질없이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개발과 직원들의 처우를 보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입증대를 위한 방안마련이 더욱 구체화 되어야겠고 관행과 고질화된 제도를 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협회상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충실하게 이루어져 좋은 성과를 거두고 이러한 성과가 앞으로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직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업무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처리하겠다는 근무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직원의 자기개발과 직무교육을 통한 정예화에 힘써 자연 감소되는 자리는 충원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분담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 모두가 대한결핵협회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다른 직원의 아픔을 덜어주고 기쁨을 나눌 주면서 한 가족으로 뭉쳐야 할 것입니다. †